



이동국 첫 골 쏜다

오늘 밤 맨체스터시티전 '조커' 출전

박지성·설기현·이영표도 출격 준비

'첫 출전에 골대 명중'→39분 뛰고 승부차기 실축→정규시간 30분에 무소독→맨유 만났지만 고작 4분.'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지난 달 25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FC전에서 데뷔한 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다.

코칭스태프의 표현대로 '동화같은 데뷔'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예상했던 것 처럼 쉽지 않았다.

출전시간이 들쭉날쭉한데다 '도깨비팀'이

란 별명처럼 미들즈브러의 전력도 널뛰기를 했다. 감각이 좋을 때는 시간이 아쉬웠고 좁길게 뚫다 싶을 때는 팀이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다. '영국 스타일'로 머리를 짧게 깎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생각 만큼 기회가 잘 찾아오질 않는다.

데뷔골 도전에 네 번 실패한 '조커' 이동국이 17일 자정 다시 출격한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로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 결정지는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홈 구장이다.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17일 밤 9시45분 볼턴 원더러스와 홈 경기를 갖는다.

지난 14일 유러피언(EU) 올스타와 친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도움 하나를 올린 박지성은 잃어버린 공격 포인트의 '감'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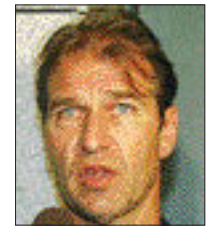
다섯 경기 연속 정규리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설기현(28·레딩FC)은 17일 자정 포츠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스티브 코펠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영표(30·토트넘)는 왓포드와 홈 경기에 출전한다. 토트넘은 왼쪽 풀백 자리에 이영표 말고는 대안이 없어 이번에도 '겨똥' 풀타임을 뛰어야 할 형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정환 다시 뽑을 수 있다”

베어백 대표팀 감독 귀국



24일 국가대표팀과 우루과이의 A매치를 앞두고 있는 베어백 감독은 이어 “안정환이 이번 우루과이전의 국가대

“안정환이 세 골을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F조 2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둔 베어백 국가대표팀 감독이 안정환(수원)의 재발탁 가능성을 열어줬다.

베어백 감독은 전날 UAE와 경기를 치르고 16일 오전 올림픽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인터뷰에서 “안정환이 처음에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좋았고 또 얼마 전에 세 골을 넣었다는 얘기에 기뻐했다”면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가대표팀에서도 뭘 수 있다”고 말했다.

표팀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6년 동안 그를 알고 지내 왔다”고 강조했다.

베어백 감독은 또 UAE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한동원(성남)이 박주영(FC서울)의 공백을 잘 메워줬다”고 칭찬하면서도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치면서 후반전 공격 라인에 5명이 나 나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최소타 '버디쇼'

PGA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첫날 6언더 선두

최경주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9위

3주 동안의 공백과 난이도를 한껏 높인 코스도 '골프황제'의 앞길에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세계골프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첫날 공동 선두에 오르며 대회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우즈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베이힐골프장(파70·7천13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뽑아내고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4타를 때렸다.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잡아낸 본 테일러(미국), 그리고 폴 케이스(잉글랜드)와 공동 선두.

64타는 올해 우즈의 개인 최소타 기록이며 지난 2004년 대회 1라운드 때 67타를 친 이후 12라운드 만에 나온 60대 타수다.

이 대회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우승했던 우즈는 이후 3년 동안 중위권 이하의 성적에 그쳤지만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릴 교두보를 마련했다.

월드매치플레이오프입선을 치른 뒤 3주 동안 투어를 쉬었던 우즈는 이날 단 한차례 그린을 놓쳤을 뿐 17차례나 버디 기회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아이언샷을 구사해 러프를 기르고 파72 코스를 파70으로 바꾸

는 등 난코스로 만들었다는 주최자 파머를 머쓱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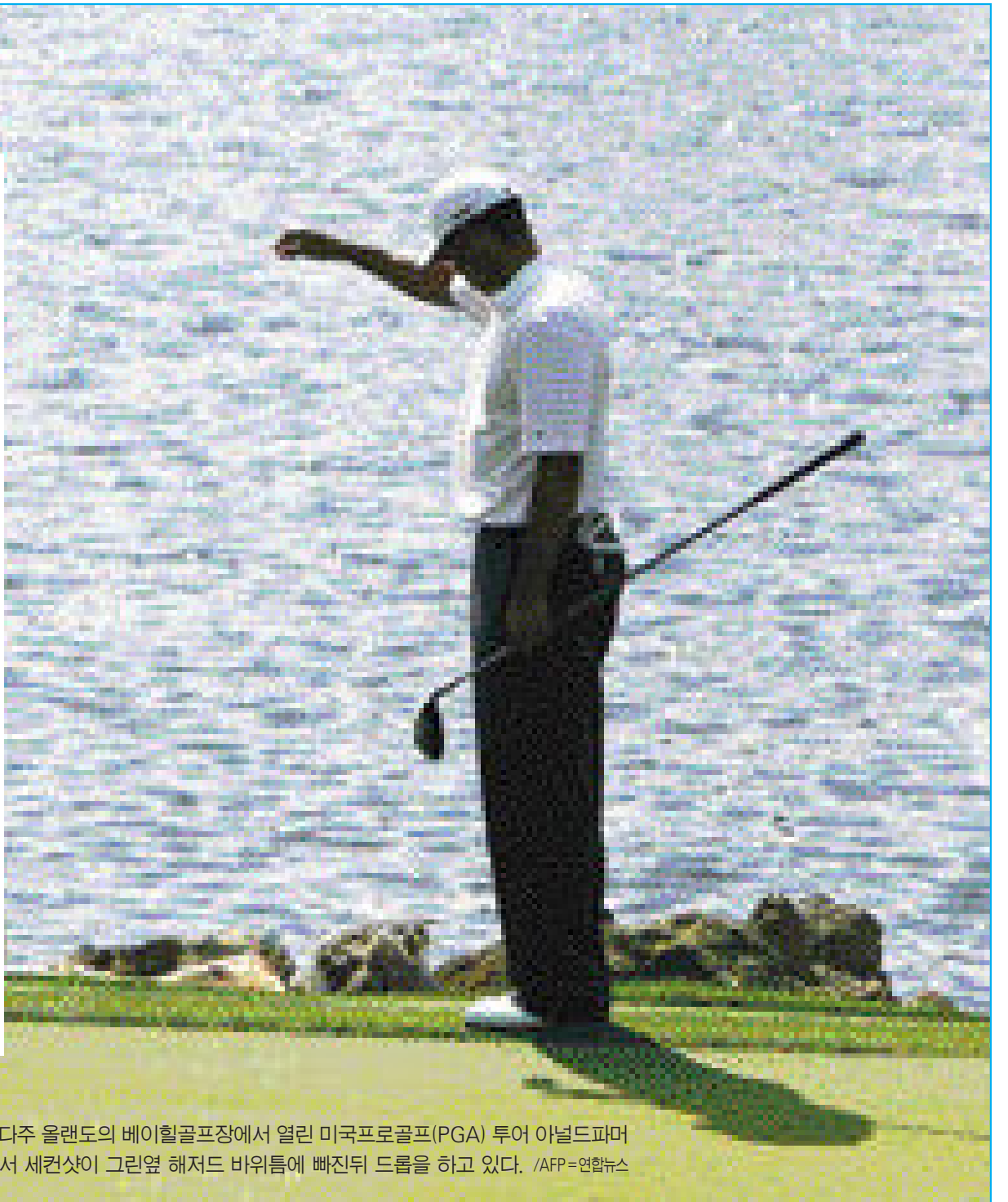
앞선 대회에서 어렵게 타이틀 방어에 실패한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의 선전도 눈길을 끌었다.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친 최경주는 우즈에 3타 뒤진 공동9위에 올라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대회에서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닦았다.

PGA투어 대회 첫 스트로크플레이대회에 나선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버디 3개를 잡아냈지만 보기 5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2타를 쳐 첫 통과가 쉽지 않았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마지막 1개 홀을 치르지 못했다. 위창수는 17개홀 동안 버디는 1개에 그치고 6개의 보기를 쏟아내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베이힐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 18번홀에서 세컨샷이 그린엿 헤저드 바위틈에 빠진뒤 드롭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재응 무실점 완벽투

클리블랜드전, 공 35개로 40닝 1피안타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의 서재응(30)이 시범 경기에서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며 올 시즌 맹활약을 예고했다.

서재응은 16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윈터헤이븐 체인 오브레이크스 파크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안타를 단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는 완벽투를 펼쳤다.

12타자를 상대로 35개를 던졌고 삼진 1개를 낚았다. 볼넷은 없었고 땅볼 5개, 플라이볼 6개로 간단히 요리했다.

지난 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첫 단추를 꿰 서재응은 11일 필라델피아전에서는 3이닝 1실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날 다시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승승장구했다.

평균자책점은 1.00으로 한국인 선발 투수

가운데 박찬호(34·뉴욕 메츠), 김병헌(28·콜로라도), 김선우(30·샌프란시스코)가 불안한 투구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서재응의 일관된 투구는 단연 돋보였다.

탬파베이의 또 다른 한국인 투수 유제국(24)은 0-5로 뒤진 8회 등판, 세 타자를 모두 땅볼 처리해 자책점을 1.80으로 떨어뜨리며 5선발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시범 3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만 허용했다.

한편 최희섭(탬파베이)은 이날 7회 대수비로 출장했고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2루 땅볼로 물러났다.

반면 추신수(25·클리블랜드)는 결정했다. 시애틀 매리너스의 우완 투수 백치승(27)은 시범 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대량 실점하며 고전했다.

백치승은 시카고 컵스와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 3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안타 7개를 맞고 6실점해 2패를 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男, 현대 캐피탈 '우세'

女, 도공 - 현대 '백중'

V리그 플레이오프 전망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V-리그 플레이오프가 17일 남자부는 천안, 여자부는 구미에서 3전2선승제 승부에 들어간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전문가 전망을 들어봤다.

◇남자부=전문가들은 현대캐피탈이 신영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대한항공에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세호 KBS 해설위원은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현대가 우위에 있지만 젊은 대한항공 선수들이 좋은 흐름을 타고 현대가 잘 안 풀릴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현대가 1차전을 이기면 바로 승부가 날 것이고 대한항공이 이긴다면 3차전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자부= 전문가들은 선뜻 말을 꺼내지 않을 정도로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백중세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미희 KBS N스포츠해설위원은 “도로공사는 레이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약점이다”라면서 “현대건설은 박선미가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김사니 세터가 있고 레이첼의 공격력이 있는 도로공사가 유리하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나길 해설위원은 “여자부는 박빙이지만 현대건설이 다소 유리하다. 현대건설은 한유미가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이동하면 상승 효과가 크다. 도로공사는 서브 리시브가 잘 안되면서 강점이었던 이동공격이 잘 안 나오고 레이첼에게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무등야구장 연간 입장권 판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17일부터 광주 무등야구장의 연간 입장권을 판매한다.

팬북 등 기념품과 다과가 제공되는 특석은 70만7천원이고 지정석은 32만9천

원, 일반석은 26만6천원이다.

KIA는 또 올해 일반석의 성인 입장요금을 지난 해보다 1천원 오른 6천원으로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7일(토)

▲일본 프로야구 시범경기<요미우리-라쿠텐>(12:50·SBS스포츠)

▲V-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남자부<현대캐피탈-대한항공>(13:40·KBSN Sports), 여자부<현대건설-도로공사>(16:00·KBSN Sports)

▲프로야구 시범경기<삼성-한화>(14:00·MBC ESPN)

▲프로농구<SK-오리온스>(14:50·Xports)

▲K리그<수원-부산>(16:50·SBS스포츠)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볼턴>(21:30·MBC ESPN)

18일(일)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시티-미들즈브러>(00:00·MBC ESPN)

▲PGA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3R(03:30·SBS스포츠)

▲HBO 복싱<바레라-마르퀘스>(10: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 시범경기<요미우리-한신>(12:50·SBS스포츠)

▲V-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남자부<현대캐피탈-대한항공>(13:40·KBS1), 여자부<현대건설-도로공사>(15:40·KBSN Sports)

▲프로야구 시범경기<삼성-한화>(14:00·MBC ESPN)